



近代中国と韓国における明治小説の受容様相について：徳富蘆花「不如帰」を中心に（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の近代と海港都市：文明の入口から出口、そして混合の場へ」報告要旨）

寶, 新光

(Citation)

海港都市研究, 9:188-190

(Issue Date)

2014-03

(Resource Type)

departmental bulletin paper

(Version)

Version of Record

(JaLCD0I)

<https://doi.org/10.24546/81005504>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05504>



近代中国と韓国における明治小説の受容様相について

——徳富蘆花の『不如帰』を中心に——

竇新光

本報告 This report は、近代東アジア世界で大きな影響を与えた作品である『不如帰』(1898、徳富蘆花著)を扱っている。近代東アジア日中韓三か国すべてで大きい影響力を持ち得た稀有の作品だからである。

日本における『不如帰』の登場に関する概観から論を始めた。『不如帰』は徳富蘆花が1898～1899年、『国民新聞』に発表した長編小説である。日清戦争前後の日本社会を背景とした主人公の二人の悲しい love story であり、明治時代の大ベストセラーと言える。

次に、近代中韓両国における『不如帰』の受容を考察した。1908年、著名翻訳家の林紘が文言文で翻訳した『不如帰』は、上海の商務印書館によって出版された。一方、韓国への導入は1912年、趙重桓が翻訳した『불여귀(不如歸)』であり、鮮于日が翻案した『두견성(杜鵑聲)』と金祐鎮が翻案した『유화우(榴花雨)』の3著が挙げられる。

さらに、近代中韓両国における『不如帰』の受容の様相の差異及び原因を比較・分析した。受容の動機から見れば、中国は自発的で、積極的に『不如帰』の受容を進めてきたのに対して、韓国では、ある意味で受容を迫られたと言える。『不如帰』を自国に受け入れる方式を見れば、中国は翻訳を重視し、韓国は翻案を偏重していた。導入時に、中国は原著の「集団叙事」を重要視し、韓国は原著の「個人叙事」を強化した。中国では、『不如帰』を受け入れたのは主に知識のある中層と上層社会であり、韓国では上から下まですべての階層であると対比される。

『不如帰』を通じ、近代東アジア日中韓三国間における文学関係と三か国の文学の共通性及び相違性が明らかになると総括できる。

关于近代中韩两国对日本明治小说的接受情况

——以德富芦花的《不如归》为中心——

该论文的考察对象为曾在近代东亚世界产生过重要影响的作品《不如归》（1898年，德富芦花著）。笔者着手该研究的问题意识在于，像《不如归》这样在近代东亚的中日韩三国都具有广泛影响力的明治小说是极其罕见的，而目前从东亚三国的整体视角对该作的研究还很少。

论文首先对《不如归》在日本的问世情况进行了概述。《不如归》是德富芦花1898年至1899年连载于《国民新闻》的长篇小说。该作以中日甲午战争（日本称之为“日清战争”）前后的日本社会为背景，讲述了主人公浪子与武男悲惨的爱情故事，是日本明治时代空前的畅销书，也是日本近代文学的经典名作。

接下来，笔者对《不如归》流传到近代中韩两国的过程作了整理。《不如归》流传到中国是在1908年，由著名翻译家林纾翻译为文言文，经上海商务印书馆出版发行。《不如归》流传到韩国是在1912年，共出现了三种版本，即赵重桓翻译的《不如归》，鲜于日翻译的《杜鹃声》以及金祐镇翻案的《榴花雨》，其中赵重桓的《不如归》引起的反响最大。

最后，笔者对近代中韩两国对《不如归》的接受之差异进行了重点分析。从接受的动机来看，中国对《不如归》的接受是主动积极的，而韩国对《不如归》的接受在某种程度上讲则是被动被迫的。从接受的方式来看，中国偏重以翻译的方式引入《不如归》，而韩国则偏重以翻案的方式引入《不如归》。从接受的内容来看，中国强化了原作中的集团叙事和严肃性，而韩国则强化了原作中的个人叙事和娱乐性。从接受的阶层来看，《不如归》在中国的影响面主要是中上层知识分子，而该作在韩国的影响面则涉及到了从上到下的各个社会阶层。

《不如归》是东亚文学史上一部非常重要的作品。通过对《不如归》在近代东亚社会的传播情况的考察，我们可以很好的理解近代东亚中日韩三国间的文学关系及三国间文学·文化的共通性与差异性。

근대 한중 양국에 있어서의 일본메이지소설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

—도쿠토미 로카의 『호토토기스』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근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광범한 영향이 있었던 작품 『호토토기스』(도쿠토미 로카 저, 1898-1899)를 다루고 있다. 필자의 문제 의식은 『호토토기스』처럼 근대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작품이 매우 드물고, 현재까지 동아시아 삼국의 전체적인 시야에서 『호토토기스』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는 것에 있다.

본논에서는 먼저 일본에서의 『호토토기스(不如歸)』의 등장을 정리했다. 『호토토기스』는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가 1898년~1899년 『國民新聞』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 전후의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인 나미코와 다케오의 슬픈 사랑 이야기다. 『호토토기스』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공전의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일컬어진다.

다음에는 근대 한중 양국에 있어서의 『호토토기스』의 도입 과정을 정리했다. 『호토토기스』가 중국에 도입된 것은 1908년, 유명한 번역가인 임서(林紓)에 의해 문언문으로 번역되어 상해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을 통해서 출판되었다. 『호토토기스』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12년, 3가지 판본이 나왔다. 즉 조중환이 번역한 『불여귀』, 선우일이 번안한 『두견성』과 김우진이 번안한 『유화우』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조중환의 『불여귀』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근대 한중 양국에 있어서의 『호토토기스』의 수용 양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수용동기의 측면으로는, 중국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호토토기스』를 도입하였고 한국은 피동적으로 『호토토기스』를 도입한 것이었다. 수용 방식에서 보면, 중국은 번역을 편중했고 한국은 번안을 편중했다. 수용내용으로는, 중국은 원작 중의 집단서사와 엄숙성을 강화했고 한국은 원작 중의 개인서사와 오락성을 강화했다. 수용계층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주로 중·상층 사회의 지식인들이 『호토토기스』를 수용하였고 한국에서는위·아래 구분없이 각 사회 계층에서 『호토토기스』를수용하였다.

『호토토기스』는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의 『호토토기스』의 전파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간의 문학관계와 삼국의 문학·문화의 공통성과 이질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